

제7강 비물질적 노동과 공통적인 것의 생산 I

(1교시)

▲ 노동의 개념과 최근의 노동 형태

기존의 생각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개념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 이에 앞서 우리는 기존의 노동, 노동자에 관한 성격을 추적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노동이란 용어는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Material)으로 사용되어 왔음.
ex)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노동자, 조선포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근력을 사용하는 공장노동자들.
- Material의 또 다른 표현 Industrial : 이는 산업을 의미함과 동시에 근면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함. 이 용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산업자본가(Industrial Capital)를 말하는 용어임.
- Industrial의 두 가지 형태: ① 기계 리듬에 맞추어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노동, ② 이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의 형태. 그것은 다름 아닌 대지 위에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일하는 농업 노동. 보다 Natural한 형태를 보임.
- 최근 노동의 형태는 어떠한가?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서비스 업종, 교육, 의료 전반에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편재해 있음. 비록 이 형태가 양적으로 우월한 면모를 띠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 될 수록 이러한 비물질적 형태의 노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 반면 제3세계 국가에서는 공업에 기초를 둔 물질적노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하나의 문제설정이 됨.

▲ 자연 농업의 노동과 인위적 농업의 노동

농업의 예를 통해 물질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의 이행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스라엘 주요 산업은 노동으로, 실제로는 비옥한 농토나 물이 없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지는 공장의 형태를 띰. 건물에다 흙을 가져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와서 온실재배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자연 농업에서의 노동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농업 노동의 면모를 보여줌. 1900년대 이후 인위적인 농업이 대두됨. 즉, 농업조차도 순수 자연 노동이 아닌 비물질적 노동의 형태를 갖추었음.

물질 → 비물질, 단순 농산물생산 → 서비스업과의 접속을 통한 유기농

(2교시)

▲ 물질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의 전환

- 물질노동이 여전히 헤게모니적이며 다른 것은 예외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인데 이는 물질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의 이행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비물질 노동이 대두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당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우리는 전통 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과 현대 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의 변이에 주목해야 함. 전통적 유물론을 고수하는 사람들, 즉 물질을 가시적인 것, 실제적인 것만을 물질로 보는 사람들은 비물질에 관한 사유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의식에 독립된 실재(reality)를 물질로 보는 이분법적 입장은 잠재성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함.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물질적인 것마저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고 노력함. 비실재적인 것이나 비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실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비물질 노동의 출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함의를 가짐. 인류 세계에 내재해 있던 잠재성이 발현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ex) 기우제

→ 기우제는 극히 정신적인 과정. 이것이 과학적 실효성을 갖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 작업이 가지는 사회 정치적 함의는 크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은 존중받아 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는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현실태로 다가온다.

▲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버추얼리즘

-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예로 들어보자. 이는 Virtualization, 즉 가상적인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새로운 기술임. 아날로그적 연속체와의 단절. 이 기술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자. 문자나 언어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소리의 세계를 분할해서 재조립하는 활동임. 이 역시 디지털적이라 불릴만한 활동임.

-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직접적인 연속적 활동으로서 버추얼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문자나 언어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미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 가상 세계를 구축해 왔음. 디지털화는 가상성, 실제 경험을 추상화하고 압축시키며, 미분화시키는 작업임. 단, 이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는 아님.

- 기계에 유착된 산업노동자들도 디지털에 밀착되어 있음. 기계는 일종의 지식체계를 압축시켜 놓은 것임. 이 역시 추상적 기호와 정보체계로 이루어진 것임. 물질 노동이라고 부르는 영역 역시 비물질적인 것이 상당 부분 스며들어 있다. 자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식의 해석이 가능함. M-C-M이라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짐. 이 과정도 M-P-C-M과 같은 식으로 보다 복잡해짐. 금융자본의 예를 들면 이는 상품과정이 생략된 과정임. M-C-M이 아니라 M-M의 과정으로 바뀌었음. 화폐 자체도 추상화되어 표기됨. 주식시장의 전광판에서 보듯이 화폐도 버추얼화 되어 있음.

→ 대부분의 활동들이 비물질적 추상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